

“現 중3, 수험부담 커지고, 대학 선발 변별력 줄어들고”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EBS 연계 50%로 축소
연계방식 ‘간접 연계’로 변경
대학들 “어떻게 뽑으라고” 불만
논술·정시로 뽑을 가능성 높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대입준비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모의고사 배치 평가표를 살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EBS 연계 비율이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도 ‘간접 연계’로 바뀐다. 또 현재 12개 대학이 대학별로 치르는 적성고사와 수시 모집에서 활용되는 교사추천서가 폐지된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커지고,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미포함 과제 논의를 위한 6차 대입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안들은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 측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교육부 검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능-EBS 연계 70%→50% 축소, ‘간접연계’로

우선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 축소되고, 연계방식도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수능-EBS 연계 출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

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돼 왔다.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암기식 학습의 문제가 제기되자 영어 영역에 한해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으로 ‘간접 연계’ 출제되고 있다. 개선안은 EBS 연계로 인한 학교 교실의 ‘EBS 문제 풀이식 수업’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반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서 수능 시험 대비가 수월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교육부는 “EBS 연계를 전면 폐지하기 보단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접연계 출제될 경우 변형된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EBS 연계율이 줄었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EBS 교재와 학교 내신 교재를 병행해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변형된 문제까지 예상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계를 축소로 얻는 부담 완화보다 간접연계방식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성고사, 교사추천서 폐지… 대학들 ‘학생 선발 근거 부족’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12개 대학이 시행하는 적성고사 또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적성고사는 국어·수학·영어 등 대학별 정한 2~3개 과목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객관식 시험으로 대학들은 보통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내신성적 60%, 적성고사성적 4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적성고사는 내신보

다 적성고사 성적의 실질 영향력이 커 내신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관문이어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의 수시 지원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적성고사가 폐지되면 해당 대학들은 학생 선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논술전형이나 수능 전형인 정시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천대학교 이재희 입학처장은 “적성고사전형은 내신 3~5위권에 해당하는 중위권 학생들에게 대입 기회를 주고,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 사교육 유발 요소도 아니다”면서 “적성고사 폐지 방침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적성고사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추천서는 대입의 단순화와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가 유력하다. 학생부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교사추천서는 학생의 장점만 나열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학생 선발 근거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연세대 박정선 책임학사장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천서는 허위 기재와 대필 등의 문제가 있는 자기소개서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므로 무조건 폐지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제

안했다. 자기소개서는 유지되지만, 기존의 문항당 1000자~1500자의 ‘서술형 에세이’에서 문항당 500자~800자의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된다. 또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0점 처리’돼 미달시에는 합격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탈락·입학취소 조치’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고·특목고 등 고교 유형별 선발결과 공개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의 공통 평가기준과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 전형별 일반고와 특목고 등 신입생의 고교 유형별·지역별 선발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A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비율이 공개되면, 해당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해당 대학이 발표한 내신 합격선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기준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대학 지원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검토안에 대해 대학과 각 교육청의 의견과 온라인 윤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중 발표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중앙대 대전 학부모 입시간담회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23일 오후 12시 30분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대전지역 고교생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브라운백 미팅은 갈색 종이봉투(Brown bag)에 담긴 다과를 곁한 단출한 회의에서 유래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에게도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서경대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20일까지 전시·시상식 개최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지난 13일 오후 교내 해인관에서 ‘서경대학교 제7회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열고 기초디자인 부문 세현고등학교 한호원 학생에게 대상인 총장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 수상작품은 오는 20일까지 서경대 해인관 6층에서 전시된다.

우석대 도로공사 취업설명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는 진로취업지원센터가 17일 문화관 아트홀에서 ‘2018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참가 신청은 우석대 진로취업센터(063-290-1948)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유치원부터 ‘생존수영’… 전국 126곳 시범운영

자유영 등 영법위주 수영 아닌 물에서 버틸 수 있는 기술 훈련

교육부는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5세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이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 시 내외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생존수영은 자유영 등 영법 위주 수영 교육이 아닌 위급 상황 시 유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보빙(물속에서 바다 차고 점프하기),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열린 인천해양경찰서의 생존수영교실에서 참가자가 과자봉지를 이용해 물에 뜨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 앞서 16일 경북 구미에서 유치원 생존수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

아 대상 생존수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도 연다. 워크숍에서는 물놀이 안전 교육과 함께 유치원별 생존수영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시범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7월 중 전국 유치원에서 물놀이 안전교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 대상 물놀이 안전지침 등의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통계청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운수사고, 2위는 질식, 3위는 익사사고로 나타났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아들의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유치원에서의 유아 대상 안전교육 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선발

지난해 특별감사서 비리 적발 올해 운영평가서도 ‘매우 미흡’

지난해 설립자 가족의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위를 박탈,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이 내용을 학

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고,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전국단위 신입생 선발과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 결정 등 자율

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3학년이 되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컨설팅과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앞서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 등 학교 예산 부당집행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한용수 기자